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8월 21일 (제1163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반복하라

장인이 되길 원하는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하는가? 김연아처럼 최고의 스케이터가 되길 원하는가?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길 원하는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길 원하는가? 글을 잘 쓰길 원하는가? 이 초석 목사처럼 능력을 받길 원하는가?

별거 아니다. 방법도 딱 하나다. 반복하는 거다. 반복적으로 만들어보고, 반복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반복적으로 공을 차고, 반복적으로 요리를 해보고,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다. 한석봉이 집을 떠나 공부를 한 지 10년, 어느 날 한석봉은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밤길을 달려왔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반가운 기색도 없이 왜 왔냐고 먼저 물었다. 한석봉은 공부를 많이 해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불을 끄게 한 후 자신은 칼로 떡을 썰고 한석봉은 붓으로 글씨를 쓰게 하여 둘의 솜씨를 비교해보자고 했다. 잠시 후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크기나 두께가 모두 일률적이었는데, 한석봉이 쓴 글씨는 엉망이고 비뚤비뚤했다.

어머니는 한석봉을 크게 꾸짖고 자신의 떡처럼 눈을 감고도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 밤으로 한석봉을 다시 돌려보냈다. 돌아간 한석봉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글쓰기를 반복했겠는가. 그랬기에 한석봉이 조선 최고의 서예가가 될 수 있었다.

반복은 달인을 만든다. 반복은 전문가를 만든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 끝까지 중무장한 거인이었다. 파고 들어갈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이 낫 투구 사이 조그만 틈새로 물맷돌을 날려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평소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물맷돌을 반복적으로 던져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뭘든 대가가 있기 마련일진대 전문가가 되는 길, 그 분야에 성공하는 길은 별거 아니다. 반복, 반복이다.

최선(最善)은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 목사님은 3주간 이어진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 일정 동안 초인적 자세로 사력(死力)을 다하셨다. 어디 3주뿐인가. 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이후 지속적으로 기도원에 상주하시면서 오치환 장로 기념 야외식당을 꾸미고, 새로 매입한 기도원 뒷산 계곡을 정비하며, 카페, 텐트촌 조성, 숙소 리모델링 등, 집회 준비부터도 기도원 식구들, 특공대를 비롯한 주의 종들, 신학생들과 함께 사력을 다하셨다.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개

“기도원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오치환 장로가 야외식당을 꾸미다 사고로 소천하고, 대성전에 LED를 설치하다가 안영철 목사 아들 강선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까지 겪으면서도 나는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는 각오로 무너지는 나를 다그치며 이 집회를 준비했고, 그들을 생각하며 오전과 저녁 집회를 직접 인도하며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내 목숨까

는 마당에 텐트를 쳐봐야 누가 사용하겠냐고 하자 목사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이는 성도들과의 약속이다. 지도자가 자기 입으로 선포한 일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접어버리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라가겠는가? 예전에 내가 기도원 공사를 마치고 봉헌예배를 위해 아스팔트를 깔라고 하자 땅이 아직 굳지 않아서 깔아봐야 곧 다 갈라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때도 단호히 말했다. 단 하루의 국가행사를 위해서도 돈을 들여 단장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2022 하계산상집회 마지막 저녁집회 광경

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더 나아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를 숭선수범으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수련회 기간에는 총 5회 강의, 2주간의 산상집회 동안에는 오전과 저녁 시간 등 총 10회에 걸쳐 집회를 인도하셨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외치듯이 3, 4시간을 설교하시는 것은 건 강한 젊은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집회 기간 항상 오후에 진행하시던 상담 시간을 전폐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단에 오르신 결과이기에 집회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은 모두가 ‘이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지도 그분께 드리겠다며 달려온 내 진실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인 내 삶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자세로 사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 목회뿐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럴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기도원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대성전 앞에 설치해놓았던 텐트들이 날아가고 엉망이 되는 바람에 다 접어놓았는데, 목사님은 집회 첫날 오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도 주의 종들을 소집하여 다시 텐트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셨다. 바닥 곳곳에 물이 고여있

를 위해 하라는 것이다. 당장 이 밤에라도 업체를 수배하여 공사를 마치고라 지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단장된 기도원에서 성도들과 함께 봉헌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목사님이 38년 목회 기간에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삶이 있기에 목사님은 항상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외치시는 것이다. 그 분명한 족적(足跡)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왕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라, 사력을 다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시는 것이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6:9)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계산상집회 때 이월드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월드 목사를 보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부모나지 않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이월드 목사가 생쁩입니다. 그는 정말 제 속을 무진장 썩인 자식입니다. 이월드 목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소주 4병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왜 나더러 목사를 하라는 거냐?"며 저를 침대에 내던지고 문을 부수고 나갔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호주에서 들려왔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날따라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저 아들이 당신의 종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살려서 쓰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인들 조용했겠습니까. 지금은 다시 하나가 되어 아주 잘 살고 있지만, 한동안 가정이 깨지는 아픔도 겪었지요. 저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걸렸지요. 그러나 결국 이월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 부모나지 않는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농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자식농사를 잘 짓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회유작전으로도 안 됩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몇 년 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우리 집에 망아지 하나가 들어와 온 집을 부수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그것을 잡으려고 망아지 목에 있는 줄을 잡았는데, 얼마나 날뛰는지 제 손이 갈라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때 "놓아라!"는 음성이 들려 잡았던 손을 놔더니 그 망아지는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그 망아지가 암전히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가 하려 말고, 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했더니 오늘날 이월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이호규'에서 '이월드'

라고 바꾸어주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개명을 해줘도 월드가 뭐냐?'며 소리를 벽벽 질러댔었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이 제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 지은 겁니다. "너는 서울교회나 한국에서 내 후계자가 될 생각일랑 마라. 너는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늘 말해줬습니다. 독이 깨지지만 않았으면 아무리 큰 독도 차는 날이 있습니다. 깨진 바가지로 물을 떠다 날라도 언젠가는 차는 날이 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아들 녀석 스스로가 '이월드'로 호적까지

지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훗날 링컨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성장해서 가게에 나가 일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내게 떨어지지 않았다." 세계 3대 고백록 중 하나인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로 부모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10대 때에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쾌락을 좇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20대에는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30대 초에 회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의 어머니는 아들이 방황할 때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어느 성인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참회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을 들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스펔전 목사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신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중에 신앙심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했고, 그 아들 중 하나는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새벽기도 덕이라 늘 생각하여 자신의 제약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 했고, 심벌마크를 '종'으로 했다고 합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종을 쳐서 새벽예배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기 위해 무던히 기도했고, 사무엘이 태어나자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된 것은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백일도 안된 아

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물에 띄우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 자신이 모세의 유모가 된 것, 그리고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바탕에는 그의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교회 신문에 실린 장영국 목사의 글을 보니까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장 목사에게 '내 장례예배는 꼭 장 목사님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믿는 아들, 시험에 든 딸을 구원코자 하는 권사님의 유언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교회에 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그 기도가 열매를 못 맺자 죽어서라도 이루고자 장 목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장 목사는 어머니의 뜻을 자식들에게 전했고, 권사님의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장 목사와 약속했답니다. 참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시127:3)입니다. 기업이 잘못되면 제일 힘든 건 기업주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제일 괴롭고 눈물항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유학도 좋고, 좋은 학원도 좋습니만 기도야말로 자녀에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남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업과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아서는 못 이뤄지만 장례예배 때 자식을 구원한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고삐를 잡고 있으면 내 손에서 피만 나고, 내 가슴에 피멍만 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십니다. 제 아들 이월드 목사처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걱정,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멋진 생각, 멋진 작품!

지금이다

1997년에 시작된 전국 청소년연합수련회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다. 더구나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치 더 크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 4년 동안 성장을 멈춘 채 오로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소대나무’처럼,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을 다진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런 뜻깊은 행사였기에 준비에도 더욱 만전을 기울였다. 하지만 막상 기도원 현장에서의 짧은 준비 기간 동안 할 일은 태산이었다.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대성전을 완벽한 세미나장으로 꾸미는 것이었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진행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세미나용 탁자를 깔기 위해 대성전 뒤편으로 장의자들을 옮겨 쌓았다. 너무 많아 일부는 성전 뒤편 복도에 쌓아 검은 천으로 가림막을 만들어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그때 즈음에 총회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높이 쌓아 놓은 장의자들을 가리키며 한마디 하셨다.

“너희 생각엔 아이들이 이만큼만 올 거로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탁자를 깔고, 장의자들은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겠지? 그런데 왜 아이들로 대성전을 가득 채우겠다는 생각은 못 해!”

아... ‘생각의 한계를 긋지 말라!’시던 말씀을 그렇게 들어 놓고서도, 정작 나도 모르게 현실에 발목이 잡혀 과거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깨달음에 정신이 번

쩍 들자, 피로는 가시고 의지가 용솟음쳤다. 즉시 세미나용 탁자와 의자로 대성전 뒤편까지 짝 차게 자리를 배열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련회가 시작되자 그 기도와 바람처럼, 꾸역꾸역 빈자리의 주인들이 찾아 들어오더니 마지막 시간엔 자리가 부족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들은 멀리 해외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폐회 예배라도 참석하고 돌아가겠다’며 기어코 마지막 날 저녁 12시 30분에 막차를 타고 도착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대성전을 수련생으로 가득 채우고 말리라’는 총회장님 생각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 매시간 사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총회장님의 모습에 수련생들도 집중력으로 화답하여 가히 더할 나위 없는 성공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 멋진 생각이 멋진 작품을 만든다! 또한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째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급성장하는 ‘모소대나무’처럼, 예수중심의 다음 세대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히말라야산맥 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낮에는 실컷 놀다가 밤이면 잘 데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는다. 그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일이면 집 지오리, 내일이면 집 지오리.” 하며 밤새 다짐한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따사로운 햇살에 지난 밤의 다짐은 잊은 채 또다시 종일 놀기에만 바쁘다. 결국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 야맹조는 일생이 다 가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

사단의 전략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하라’, ‘나중에 하라’, 그러니 속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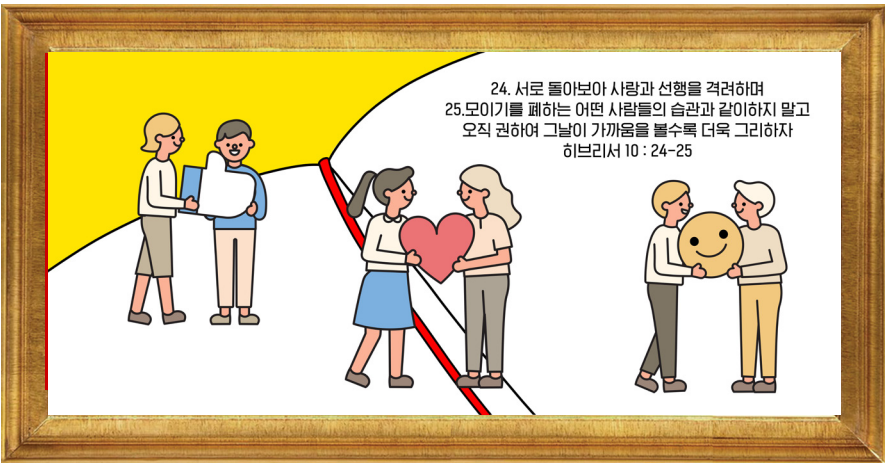
오늘과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일과 나중에는 사단의 방법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하며 미루는 사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능력 밖이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

늘, 바로 지금뿐이다. 오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 시작이 곧 성공의 시작이다. 그러니 할 수 없는 변명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라.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고 말씀하신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은 ‘기회를 사라’는 것이다.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 왔을 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기회, 은혜받을 기회, 봉사, 충성, 헌신할 기회...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온 하인의 말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맞볼 수 있는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이다. 믿으면 기회요, 하인의 말을 들으면 죽음이다.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 ‘달리다꿈’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김상욱 목사



:: To Be Succeeded ::

:: 생명의 말씀 ::

용서하면 산다

행복을 파괴하는 비교의식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여사(1892~1983)의 일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독일 나치군에 끌려가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녀는, 이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자신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가족을 죽인 간수를 본 그녀는 그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용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의 인사를 전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운명을 감싸 응어리져 있던 모든 상처와 미움, 증오를 태우고 녹여 진실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명 높던 그 간수가 완전히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친지, 이웃, 성도 간에 크고 작은 원망과 미움, 상처와 응어리

를 완전히 풀지 않은 채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말씀하시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마18:21~35). 또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예물 또한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마5:21~26). 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껄끄럽고 불편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활짝 열려 내 영·혼·육에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마음을 열고 진실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난다. 용서하면 묶인 것이 풀리고 치료가 임한다. 오늘 하루도 ‘용서’라는 천국열쇠를 사용하여 영·혼·육이 살아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5:20).

이국진 사모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떨어진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해진다.

미국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았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었고,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이었다고 한다.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금메달과 비교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들은 까딱 잘못했으면 4위에 그칠 뻔했기 때문에 동메달의 주관적 가치는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뛰어넘는다는 것. 결국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강단에서 가끔 내 자랑을 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런즉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랑하곤 한다.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은 그 사

람의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70억 인구 중 발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셨다. 장차 천국을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벌레’(시22:6)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죄수’(딤후1:15)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행9:15)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라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 환경, 내 현실, 내 모습, 이 모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항상 기쁨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 중 지혜라 할 것이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택함 목사

:: 간중 ::

:: 신앙에세이::

자폐증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성에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91년,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네 살 되던 해에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모교단에서 운영하는 자폐아동전문교육기관을 찾아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타 교단에서 초신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래전에 지나가는 말로 저의 귀에 들렸던 것이 문득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가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기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앓으나 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이초석 목사님을 꼭! 만나게 해달

라고 울고 또 울었던 기억뿐입니다. 목사님만 만나면 내 아들 경도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마냥 울고 울었던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2년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자폐교육기관을 갈 때면 어김없이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평소 타던 지하철을 타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버스 안에서 이초석 목사님 잠실체육관 전도집회 플래카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제 내 아들은 살았다. 내 아들은 이제 다 고쳤다.’는 큰 기쁨과 함께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아이를 업고 아들 경도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엔 예배 중에 방언을 받았고, 둘째 날엔 목사님께서 ‘아픈 자들은 단위로 올라오라’ 하셨지만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 여인을 지목하시면서 “너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올라왔느냐?” 하시니 그 여인이 ‘제 자녀가 아파서 대신 올라왔다’하니 목사님께서 다들 들어가고 아이가 아픈 자들만 올라오라는 말에 저 또한 올라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지목되어 안수받고 귀신이 쫓겨 떠나가고, 집에 가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고침 받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음날 교육기관 원감님께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저녁 이초석 목사님께 기도 받고 아들 경도가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경도 어머니, 축하해요. 경도는 병을 치료받았으니 이제는 말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나오셔서 교육받으세요.”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까?’ 하고 계속 교육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후 태어나서부터 5세 때까지 말 한마디 못 하던 아이가 말문이 터졌고, 조금씩 조금씩 말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무런 분별도 못 하던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도는 현재 나이는 35세가 되었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폐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는 매인 몸으로 자기 개인 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 덕분에 주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주예수중심교회 김성에 집사

과거와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과거로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주님의 참 평안에 눈물 흘리던, 과거로만 살지 말아야지

말씀이 달아 읽으며 밤새웠던, 찬양만으로도 뜨거웠던, 과거로만 살지 말아야지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하던, 직분에 감사하며 지체들과 함께하던, 과거로만 살지 말아야지

세상에서도 이미 지나간 영향력으로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과 강한 믿음이 아닌 현재의 내 신앙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지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약속과 다짐이 아닌 현재 내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예비됨을 기억해야지

현재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임을 현재 사랑하지 않으면 남인 것임을 현재 충만하지 않으면 떨어진 것임을

현재라는 매 순간은 늘 마지막임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12:1).

박찬영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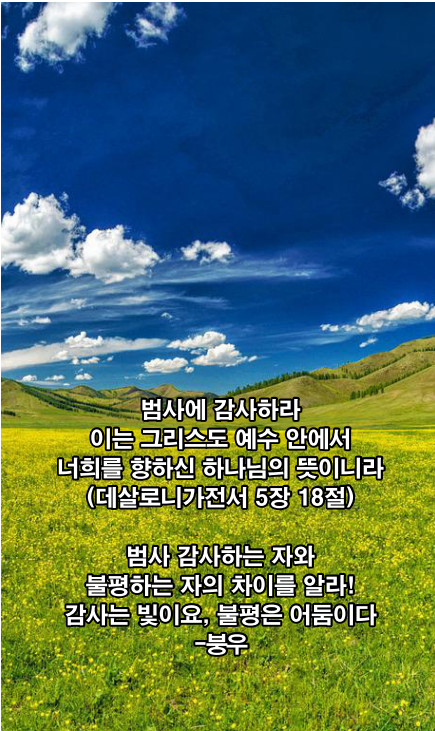
:: 일본에서 온 편지 ::

눈물로 뿌리는 씨앗

지난주일 침례예배 겸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 집중기도했기에 은혜 가운데 날 씨도, 장소도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일본인 남편이 침례를 받는데 자기도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고 싶다는 부부가 나란히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 부부는 앞으로 기적 같은 멋진 삶을 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적 같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적은 씨를 뿌린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을 심고 악한 삶을 살면서도 복된 삶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으로 흘리는 눈물은 마른 땅에 씨를 심고 붓는 물이 되어 씨를 자라게 합니다.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수고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는 도둑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셋으로 나누면 자기 소리와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소리와 자기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실패한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으며, 아합왕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의 소리는 잘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의 소리와 자기 소리가 아닙니다.
다리(bridge)는 둘을 하나로 이어주지만, 담(wall)은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

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리의 역할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다리입니다.
안 믿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시다.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5~6)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를 알아!
감사는 빛이요, 불평은 어둠이다
-봉우